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교회는 왜 낙태에 반대하나요?

신부님,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태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알고 싶어요.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교회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A.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가톨릭 교회 가르침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흠숭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위대한 하느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중 하이라이트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과 같게(창세 1, 26)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존엄하고 거룩합니다. 이 사실은 모든 교회 가르침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이러한 근본 진리에서 나옵니다. 인간 생명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당연히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생명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떠한 업적도 인간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비교조차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느님만이 관여하실 수 있으며, 이 사실은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속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존엄성을 부여 받은 것처럼, 태아도 똑같은 품위를 가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51항도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임신(수정)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자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유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낙태의 원인은 사회의 무분별한 성문화, 무책임한 관계 등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무죄한 태아에게 돌려서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전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태아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이 낙태입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듭니다. 태아에게 장애가 발견되거나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원치 않은 아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사회, 경제적 잣대로 삼아 유용하다 판단되기에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잣대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생명은 경시될 것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와 노인들, 장애인들과 병자들의 존엄성은 무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유한 기능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범죄를 마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법적·사회적 과오입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침해받는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용기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아도 인간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

회적 악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생명이라는 선을 통해 더 큰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깊은 고찰을 통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낙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렇다고 낙태한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낙태 후 정신적·심리적·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